

# 산마을(山里)의 공간문화에 관한 연구

-로지(露地)를 중심으로-

이 미 자\*

(e-mail : padutu@hanmail.net)

## <목 차>

1. 머리말
2. 헤이안시대의 와카(和歌)에 묘사된 산마을
3. 『사쿠테이키』의 산마을 조성방식
3. 로지의 공간문화의 특성과 다도문화
4. 맺음말

키워드 : 空間文化(Spatial Culture), 作庭記(Sakuteiki), 茶道文化(Chado Culture), 日本文化(Japanese Culture), 露地(Roji), 山里(Yamazato)

## 1. 머리말

산마을은 일반적으로 산속에 인가(人家)가 모여 있는 공간을 말하지만 변하여 산속마을에 지은 귀족의 별장이나 산장을 지칭하기도 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 성립한 표현으로 자연이 아름다운 땅, 은둔을 위한 장소를 의미했다. 헤이안시대의 정원조성에 관한 비전서 『사쿠테이키(作庭記)』<sup>1)</sup>에는 산마을 풍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산마을 조경방식이 정원을 조성하는 한 방식으로 헤이안시대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인들의 동경의 대상인 산마을의 이미지에 주목하려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수료, 일본문화

1) 『사쿠테이키』의 인용문은 林屋辰三郎 校注(1973) 『作庭記』 『古代中世芸術論』 日本思想大系23, 岩波書店에 의한다. 이하 모든 인용문의 번역은 필자에 의한다.

고 한다. 헤이안시대 일본인의 내면적 심상(心象)은 주로 와카를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에 헤이안시대의 가집(歌集)인 『고킨슈(古今集)』, 『슈이슈(拾遺集)』와 사이교의 『산카슈(山家集)』에서 산마을의 용례를 추출하여 가인(歌人)들이 묘사한 산마을의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쿠테이키』에서 제시한 산마을 풍경의 조성방식과 로지의 공간문화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산마을 조성방식은 다인들의 독특한 발상에 의해 다실과 일체화된 로지의 공간형태로 계승되었다. 로지는 도시안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산마을의 심산유곡의 풍경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헤이안시대의 와카에 묘사된 적막하지만 마음이 편한 장소라는 산마을의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인의 산마을<sup>2)</sup>에 대한 동경과 공통의 이미지는 헤이안시대를 시작으로 근세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계승되어 오고 있다. 현대 일본의 도시는 어디나 가까이에 산마을이라는 배후의 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자연 본래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산마을에 대한 애착은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를 위한 시책의 일환인 산마을 활성화 방안<sup>4)</sup>에서도

2) 산마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와비의 미의식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은둔·초암·산마을에 대한 동경을 논한 연구인 石田 洵(2017) 「日本文化の風土 気分環境としての侘び」, 古典遺産 66号. 근래 젊은 층의 전원회귀(田園回歸)현상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이주자의 속성, 이주동기, 심리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고찰한 연구 谷垣雅之(2017) 「消滅可能性市町村へのライフスタイル移住行動に関する研究」, 大阪府立大学 博士学位論文. 그리고 로지의 시중의 산거라는 산마을의 이미지를 일본의 국토창조 정책에 연관시켜 다도문화가 새로운 생활경관 형성과 새로운 생활문화의 실천이념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 熊倉功夫·田中秀隆 編(1999) 「茶の文化と文明」 『茶道文化論』, 淡交社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사쿠테이키』의 산마을 풍경의 구체적인 조성방식 및 로지의 공간문화의 특성과 다도문화와 연계하여 고찰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국내에서도 산마을, 『사쿠테이키』와 로지에 관한 전문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3) 中村良夫(2009) 『風景学入門』, 中央公論新社, p.84

4) 国土庁編(1998) 全国総合開発計画 『21世紀の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 -地域の自立の促進と美しい国土の創造-』 (平成10年3月) p.9, p.42. 일본 내각에서 책정한 이 전국 종합개발 계획은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계획은 역사와 풍토의 특성에 근거한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국토, 정원의 섬이라고 부를만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일본을 출현시키고, 지구시대에 살아가는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는 결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국토의 그랜드디자인 2050」(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2050)을 발표하고, 기본전략의 하나로 아름다운 국토를 지키고,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mlit.go.jp/common/001135926.pdf>(검색일 : 2018.12.26.)

<http://www.mlit.go.jp/common/001047114.pdf>(검색일 : 2018.12.26.)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산마을의 이미지와 사상을 현대 일본의 아름다운 국토창조와 지역 활성화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산마을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2. 헤이안시대의 와카(和歌)에 묘사된 산마을

헤이안시대 후기는 말법의 세상이 도래한 것에 대한 절망감과 불안으로 은둔사상이 유행했던 시대이다. 도시에서 벗어난 산마을은 본래 귀족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탈속(脫俗)의 공간이다. 전원이나 산촌에 대한 동경(憧憬)과 함께 허무하고, 괴로운 세상을 등진 운둔과 출가를 위한 장소이기도 했다. 헤이안시대 초기에 선집된 『고킨슈』와 헤이안시대 중기에 성립한 『슈이슈』, 중세를 대표하는 은자(隱者)의 삶을 살았던 사이교의 가집 『산카슈』에서 의미하는 산마을의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1) 보는 사람도 없는 산 벚꽃아 차라리 산 아래서 피는 벚꽃 다 지고 핀다면 좋으련만. (『古今集』 春上· 68· 伊勢)<sup>5)</sup>
- (2) 저녁매미 우는 산마을의 해질녘 스치는 바람뿐 찾는 이도 없네. (『古今集』 秋上· 205· よみ人しらず)<sup>6)</sup>
- (3) 산마을의 가을은 더더욱 적막하다. 사슴의 울음소리에 밤마다 잠에서 깨어 뒤척인다. (『古今集』 秋上· 214· 壬生忠岑)<sup>7)</sup>
- (4) 산마을의 겨울은 어느 계절보다도 쓸쓸함이 더하다. 인적도 없고, 들풀 조차 사라질 터이니. (『古今集』 冬· 315· 源宗于朝臣)<sup>8)</sup>
- (5) 산마을은 빈한하고 적막하지만 덧없는 이 세상보다 편안하도다. (『古今集』 雜下· 944· よみ人しらず)<sup>9)</sup>

5) 「見る人もなき山里のさくらばなほかのちりなんのちぞさかまし」

小島憲之·新井栄蔵 校注(1989) 『古今和歌集』, 岩波書店, p.37.

6) 「ひぐらしのなく山ざとの夕暮れは風よりほかに訪ふ人もなし」 위의 책, p.74.

7) 「山里は秋こそことにおびしけれしかのなく音に目をさましつゝ」 위의 책, p.76.

8) 「山里は冬ぞさびしきさまさりける人目も草もかれぬとおもへば」 위의 책, p.105.

9) 「山里は物わびしき事こそあれ世の憂きよりは住みよかりけり」 위의 책, p.284.

산마을에 대하여 (1)은 산마을에서 피는 벚꽃에 자신을 이입하여 찾는 이 없는 산마을의 외롭고, 적막함을 표현하고 있다. 산 아래 피는 벚꽃 다 지고 피면 산마을의 벚꽃 보러올 것이라는 안타까움과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 (2)에서 산마을의 가을 황혼 무렵은 웬지 모르게 서글프고, 쓸쓸해서 저녁매미 우는 소리와 몸을 스치는 찬바람 뿐 찾아주는 이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3)은 산마을의 가을은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에 더더욱 쓸쓸하고, 적막해 사슴의 울음소리에 밤마다 잠에서 깨는 고독한 심경을 토로한다. (4)의 산마을의 겨울은 삭막한 쓸쓸함만이 더해질 뿐 인적도 없고, 들풀조차 사라질 황량한 산마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5)의 산마을은 빈한하고, 적막한 곳이지만 덧없는 세상보다는 편안한 곳이라고 고백한다. 위의 (1)(2)(3)(4)의 산마을은 자연이라는 대상에 자신의 마음을 이입하여 산마을은 외롭고, 서글프고, 쓸쓸하고, 삭막하고, 황량하고, 안타깝고, 고독한 정서를 담은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반면 (5)의 산마을은 빈한하고, 적막한 곳이지만 덧없는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속세를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도를 위한 정원인 로지가 추구하는 산마을의 이미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슈이슈』의 산마을은 봄의 도래와 함께 사람들이 찾아와 주는 꽃과 풍경이 아름다운 산마을의 정취를 한 폭의 그림처럼 서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6) 봄이 되어 사람들 찾는 산마을은 아름다운 꽃이 바로 주인임을 깨닫게 해주네. (雜春·1015·右衛門公任)<sup>10)</sup>

(7) 산마을의 주거는 안개에 살며시 가려져 있지만 담장너머로 버드나무가지의 끝자락 드리워져 있네. (雜春·1031·弓削嘉言)<sup>11)</sup>

위의 용례 (6)은 봄이 되면 사람들이 꽃을 보러 산마을에 찾아오기 때문에 자신의 산장의 주인은 꽃이라고 표현했다. (7)에서 산마을은 안개에 살짝 가려져 더욱 풍정 깊은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멀고 가까운 원근법에 의한 대비

10) 「春きてぞ人も訪ひける山里は花こそ宿主なりけれ」

小町谷照 校注(1990)『拾遺和歌集』, 岩波書店, p.290.

11) 「山里の家居は霞こめたれど垣根の柳末は外に見ゆ」 위의 책, p.295.

와 전체적인 여백의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산카슈』에 묘사된 사이교의 산마을은 은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 자연에 자신을 묶어둠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자각하는 공간으로 표출되어 있다.

- (8) 벚꽃도 지고, 사람들 찾아오지 않으면 산중에 사는 보람 있어 다시금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山家集』春上·88)<sup>12)</sup>
- (9) 산마을 초암의 깊은 정취 알고 찾아와 주는 이 없겠지. 눈이 내려 쌓인 해질녘의 정원. (『山家集』雜下 百首·1485)<sup>13)</sup>
- (10) 속된 세상과의 인연 끊고자 산중에 은거하는 마음 흔들리면 다잡아주는 듯 거센 바람소리인가. (『山家集』雜下 百首·1549)<sup>14)</sup>

사이교의 산마을은 (8)에서 벚꽃 철이면 사람들 찾아와 번거롭지만 벚꽃 지면 산중 초암에 사는 보람 있어 다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산마을에 은거하는 삶은 가끔은 번거롭지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다. (9)에서 산마을의 해질녘은 쓸쓸해서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지만 산마을의 정취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체념과 함께 눈이 내려 파묻힌 정원을 보며, 산마을의 정취에 감탄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산마을의 은거는 외롭지만 눈이 내려 자신의 상념을 하얗게 묻어주기 때문에 정원의 정취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다. (10)은 속된 세상과의 결별을 다짐하고, 초암에 은거하지만 몰려드는 상념에 마음이 흔들리면 거친 바람소리에 다시금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심경을 토로한다. 은거생활의 고독과 적막함은 자연과의 일체감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위에서 살펴본 산마을에 관한 용례를 통해 헤이안시대의 산마을은 당시의 귀족들이 산마을에 은거하면서 느끼는 혼자 남겨진 외롭고, 쓸쓸한 공간이라는 이미지와 빈한하고, 적막하지만 덧없는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12) 「花も散り人も来ざらんお折は又山の峽にてのどかなるべし」  
西澤美仁·宇津木言行·久保田淳(2003) 『山家集·聞書集·殘集』, 明治書院, p18.  
13) 「あはれ知りて誰か分け來ん山里の雪降り埋む庭の夕暮れ」 위의 책, p.284.  
14) 「山里の心の夢に惑ひをれば吹白まかす風の音かな」 위의 책, p.295.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안개에 살며시 가려진 산마을의 풍경을 한 폭의 수묵화를 그리듯이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사이교의 와카에 표현된 산마을은 자기관조와 창작을 위한 공간, 속세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상념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자 구도(求道)를 위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 3. 『사쿠테이키』의 산마을 조성방식

『사쿠테이키』에는 침전조(寢殿造) 건축에 부속된 정원조성 기법뿐만이 아니라 산마을의 풍경(風情)<sup>15)</sup>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건물과 가까운 곳에 높은 산을 축조하고, 자연석을 활용하여 산마을의 정취를 표현하는 정원조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마을과 같이 풍경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면 건물 가까이에 높은 산을 축조하고, 그 산의 꼭대기에서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돌을 배치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산의 한쪽 벼랑을 허물고, 흙을 파낼 때 나온 땅속 깊이 자리잡은 편평한 돌은 파내어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돌의 위어나 한쪽 모서리 등에 짧은 기둥을 걸쳐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 배치한다. 또는 산의 가장자리, 나무 아래, 툇마루 밑의 짧은 기둥 부근 등에 돌을 놓을 수도 있다.<sup>16)</sup>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쿠테이키』의 산마을은 건물 가까이에 높은 산을 축조하고, 산마을의 정취를 조성하기 위해 산꼭대기와 산자락에 걸쳐 약간의 돌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산마을 풍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산의 한쪽 벼랑을 허물고, 흙을 파낼 때 나온 자연석은 그 돌의 윗부분이나 한쪽 모서리에 건물의 짧은 기둥을 걸쳐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 조성하고, 낮은

15) 풍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자(2018) 「『사쿠테이키(作庭記)』와 일본 정원문화의 특질에 관한 고찰」, 日本文學 第77輯, pp.269-272 참조.

16) 「又ひとへに山里などのやうに、おもしろくせんとおもハマ、たかき山を屋ちかくまうけて、その山のいたゞきよりすそぎまへ、石をせうせうたてくだして、このいゑをつくらんと、山のかたそわをくづし、地をひきけるあひだ、おのづからほりあらはされたりける石の、そこふかきとこなめにて、ほりのくべくもなく、そのうゑもしハ石のかたかどなど、つかハしらをも、きりかけたるていにすべきなり。又物ひとつにとりつき、小山のさき、樹のもと、つかハしらのほとりなむどに、石をたつことあるべし。」 앞의 책, 林屋辰三郎 校注(1973), p.226.

산의 가장자리와 나무아래나 텃마루 밑에 세우는 짧은 기둥(동자기둥) 부근에 돌을 놓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의 벼랑(山の岸)은 산자락의 표면이 편평한 들판과 만나는 경계(境界)지점이다.<sup>17)</sup> 산마을 조성방식의 핵심은 이 산의 경사지(傾斜地)와 가까운 곳에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사쿠테이키』에서 제시한 산마을의 정취를 조성하는 방식은 산의 경사면을 허물 때 나온 자연석 위에 건물의 짧은 기둥을 세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이다. 또한 자연석을 산의 경사면과 산의 가장자리, 나무아래와 짧은 기둥 부근에 배치하여 삼산유곡의 풍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사쿠테이키』에서 언급한 산마을은 다양한 정원석(庭石)의 조합과 배치를 통해 산마을의 정취를 조성하는 조경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제시한 『사쿠테이키』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산마을 조경방식은 헤이안시대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산마을 양식은 다인(茶人) 다케노 조오(武野紹鷗)의 산마을에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오사카 성(大阪城) 안의 야마자토마루(山里丸)<sup>18)</sup>, 나고야 성(名護屋城), 주라쿠테이(聚樂梯), 에도 성(江戸城) 안의 모미지야마(紅葉山) 산마을로 계승<sup>19)</sup>되었고, 와비차를 지향하는 다실(茶室)이 설치되었다.<sup>20)</sup> 후시미(伏見)의 산마을은 천하에 이름 높은 경승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학문소를 세워 와카를 짓고, 풍경을 음미했다고 한다. 근세의 산마을은 도시 가까이 산촌(山村)의 이상향을 조성해 두고, 정신적 위로와 만족을 추구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로지의 공간문화의 특성과 다도문화

로지정원은 가레산스이(枯山水)정원이나 연못(池泉)정원과는 달리 다실과 일체화된 다도(茶道)를 위한 공간이다. 로지의 공간구성은 로지 입구와 대기실인

17) 中村良夫(2009) 『風景学入門』, 中央公論新社, p.83.

18) 千宗室 編(1977) 『宗湛日記』 『茶道古典全集』 第6巻, 淡交社, pp.207-208. 오사카 성 안의 산마을에서 개최된 다회(1587년)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19) 中村利則(他) 編(2000) 『茶室・露地』 茶道学大系 第6巻, 淡交社, p.77.

20) 中村昌生編(2018) 『茶室露地大事典』, 淡交社, p.891.

고시가케 마치아이(腰掛待合), 도비이시(飛石), 셋친(雪隠), 중문(中門), 석등롱(石燈籠), 쓰쿠바이(蹲踞) 등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로지는 대기실인 마치아이(待合)에서 다실에 이르기까지의 옥외공간에 설치된 정원으로 차니와(茶庭)라고도 하였다. 에도시대에는 서원(書院)에 부속된 정원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로지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조성하고, 인위적인 손길이 드러나지 않는 정원구성과 식재로 규정되어 있다.

로지는 원래 다실까지 걸어가는 ‘길을 가는 도중(道すがら)’이라는 의미로 ‘路地’, ‘路次’ 등으로 표기하였다. 다실로 가기위한 좁은 통로였기 때문에 ‘쓰보노우치(坪の内)’라고도 했다. 모모야마시대에서 에도시대 초기에는 ‘路次’라는 표기가 흔하게 되었고, ‘露地’라는 표기도 사용되었다. ‘露地’는 본래 번뇌를 해탈한 경지(境地)를 지칭하는 불교용어이지만 ‘로지(ろじ)’라는 발음의 공통성과 도시안의 은둔을 위한 장소라고 하는 초암다실(草庵茶室)의 근본적인 성격과 상통하는 점도 있어서 다도를 위한 정원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기로 정착<sup>21)</sup>해 갔다. 에도시대(1603~1867) 후기 이후부터 차니와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졌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인(茶人)들은 주로 로지(露地)라고 지칭<sup>22)</sup>한다. 로지의 유래와 본질에 대하여 기술한 『선다록(禪茶錄)』에 “로지의 ‘로(露)’는 ‘드러나다’를 의미하고, ‘지(地)’는 ‘마음’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본래 성품(自性)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모든 번뇌를 끊고, 있는 그대로의 본성(本性)을 드러내기 때문에 로지라고 한다.”<sup>23)</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끊어버리고, 자신 본연의 마음과 성품을 드러내는 청정한 공간이 로지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과 손님이 로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남방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센 리큐가 여는 다회에 갈 때 마다 직접 조즈바치에 넣어둘 물을 길어와 붓는 이유에 대해 제자가 묻자 로지에서 주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물을 길어오는 것이고, 손님도 가장 먼저 조즈바치를 사용한다. 이것이 로지와 초암다실의 근본이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세속의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 물을

21) 小野健吉(2004) 『岩波 日本庭園辞典』, 岩波書店, pp.320-321.

22) 神津朝夫(2012) 『茶の湯と日本文化』, 淡交社, p.122.

23) 「本露地とは、露ハあらはると訓じ、地は心を云り、此れ自生を露はすの善也、一切の煩惱を離断して、真如實相の本性を露すゆえに、露地といふ」千宗室 編(1977) 『禪茶錄』 『茶道古典全集』 第4巻, 淡交社, p.304.

담아두는 것이 조즈바치이다.<sup>24)</sup>

조즈바치(手水鉢)는 다실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입을 청결하게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돌로 만든 그릇이다. 자연석이나 돌을 가공해 만든 것으로 몸을 굽혀 웅크리고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로지에서 주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의식은 물을 길어오는 것이고, 손님도 가장 먼저 조즈바치를 사용한다. 이것이 로지와 초암다실의 근본이라고 센 리큐(千利休)가 제자인 난보 소케이(南方宗啓)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조즈바치는 몸을 굽혀야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정되어 있어서 손님은 몸을 구부리고 앉아, 조즈바치 안의 물을 떠서 손과 입을 헹궈야 한다. 누구나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 심신과 세속의 부정을 청결한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볼 수 있다.

로지의 형태와 방향성을 제시한 센 리큐는 로지에 들어갈 때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남방록』에 “로지는 그저 뜬구름과 같은 이 세상의 밖에 있는 청정한 길. 세속에 물든 마음의 티끌을 어찌 털어내어야 하나.”<sup>25)</sup>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추구한 로지는 속세의 바깥에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해탈한 경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로지를 걸으면서 속세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청정한 다실로 인도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센 리큐가 이상으로 생각한 로지의 풍경에 대해 지엔(慈円)의 와카 “떡갈나무 잎 물들지도 않은 채 떨어져 쌓인 깊은 산속 산사(山寺)의 적막함”<sup>26)</sup>을 예로 들어 표현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센 리큐의 로지는 메마른 나뭇잎이 쌓여있는 깊은 산속 산사로 가는 적막한 산길 풍경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추구한 로지와 다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도가(道歌)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로지와 초암다실도 손님과 주인도 차와 함께 서로 온화하게 마음을 나누니  
거리낌 없는 다도의 세계.<sup>27)</sup>

24) 覚書 二 「宗易へ茶に参れば、必ず手水鉢の水を自身手桶にてはこび入るゝほどに、子細を問候へば、易のいはく、露地にて亭主の初めの所作に水を運び、客も始の所作に手水をつかふ。これ露地草庵の大本なり。この露地に問ひ問はるゝ人、たがひに世塵のけがれをすゝぐ為の手水鉢なり」 西山松之助 校注(1986) 『南方録』, 岩波文庫, pp.9-10

25) 「露地は只うき世の外の道なるに心の塵を何ちらすらん」 西山松之助 校注, 위의 책, p.275

26) 「檜の葉のみちぬからにちりつもる奥山寺の道ぞかなしき」 『拾玉集』・2359

27) 「露地すきや客もあるじも茶ともにふりやはらげて隔心もなし」 西山松之助 校注, 위의 책, p.275

로지와 초암다실은 누구나 평등하게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지금 여기에서 마주하는 주인과 손님, 손님과 손님, 사람과 사물이 온 우주와 대면하여 각자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좁은 공간이다. 주인은 차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은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상호간의 미적, 인간적 공감의 장을 실현<sup>28)</sup>시키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센 리큐의 와비차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와카로 알려진 “봄꽃이 피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산마을의 잔설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봄을 보여주고 싶어.”<sup>29)</sup> 후지와라 이에다카(藤原家隆)의 이 와카는 산마을의 추운 겨울 눈 속에서도 추위에 굴하지 않고, 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해 거친 흙속에서 생동하는 생명력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와비차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본다. 비록 눈에 띄지 않고 보잘 것 없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와비(侘び)의 미의식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로지와 다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기록한 로지청차규약(露地淸茶規約)은 다치바나 지쓰잔(立花実山)이 저술한 『고츄로단(壺中炉談)』에 수록되어 있다. 난보 소케이가 정리한 이 로지청차규약에는 와비차의 다도관(茶道觀)과 다도에서 로지가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명료하게 언급하고 있다. 7개조의 로지규약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손님은 외로지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다회에 동반할 손님이 모두 모이면 목어를 쳐서 안내를 부탁한다고 알려야 한다.

둘째, 조즈바치는 오직 마음을 청결히 하기 위한 장치로 다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셋째, 주인이 안내하러 오면 손님은 뒤따른다. 주인이 빈한하여 다도구와 회석요리의 도구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도 없지만 로지에 놓은 수석과 풍정 깊은 로지의 정취를 대접하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곧 돌아가십시오.

넷째, 찻물이 끓어 소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같이 들리고, 징(銅鑼)이 울리면 손님은 다시 다실로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올 시간을 놓쳐 찻물과 숯불의 적당한 상태(湯合, 火合)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것은 무거운 죄이다.

28) 成川武夫(1988) 『千利休 茶の美学』, 玉川大学出版部, p.86

29) 「花をのみ 待らん人に 山里の雪間の草の 春をみせばや」 『壬二集』 春上・22・藤原家隆

다섯째, 초암의 안이나 밖에서 세상사에 관한 잡담은 예전부터 금지한다.

여섯째, 손님과 주인은 본래의 성품으로 대하고, 말과 얼굴빛만 꾸미는 사람은 들어 와서는 안 된다.

일곱째, 다회는 초좌(初座), 후좌(後座) 각 1회에 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단 법도(法話)나 다도 이야기로 시간이 넘는 것은 예외이다.<sup>30)</sup>

앞의 첫째 규약을 보면 손님은 외로지의 대기실에서 기다린다고 되어있다. 외로지에는 초대된 손님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이자, 복장을 점검하고 로지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를 기다리는 요리쓰키(寄付)와 바깥 대기실인 고시카케 마치아이, 외로지의 화장실인 시타바라 셋친(下腹雪隠)등의 건축물이 있다. 외로지(外露地)는 중문(中門)을 사이에 두고 내로지(內露地)와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로지의 이동경로에 따라 깔아놓은 도비이시는 주인과 손님의 동선을 원활하게 이끌어주고, 돌의 방향을 다양하게 배열하여, 한걸음씩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로지의 좁은 공간 안에서 속세의 집착을 끊고, 청정한 다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인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이시를 따라 걷거나 멈추는 동작과 쓰쿠바이에서 몸을 굽혀 웅크리고 앉아 조즈바치의 물을 떠서 손을 씻거나, 일어서는 등의 다양한 동작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연장<sup>31)</sup>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또한 도비이시와 중문, 울타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오감(五感)을 통해 공간과 융합(融合)되는 로지 특유의 공간체험 기법으로 설계<sup>32)</sup>되어 있다.

앞의 셋째 규약은 주인이 가난하여 훌륭한 다도구도 갖추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어도, 주인이 정성껏 가꾼 로지의 수석(樹石)과 자연 본연의 정취를 대접하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인으로서도, 손님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와비차의 다도관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

30)「一 賓客腰掛に来て、同道人相揃はゞ、板をうつて案内を報ずべし  
一 手水の事、専ら心頭をすゞをもつて、此道の肝要とす、  
一 庵主出請して、客庵に入るべし、庵主貧にして、茶飯の諸具不偶、美味も又なし、露地の樹石、天然の趣、其こゝろを得ざる輩ハ、これより速に歸去れ、  
一 沸湯松風に及び、鐘聲至らハ、客再び來れ、湯合・火合の差となる事、多罪々々、  
一 庵内・庵外におゐて、世事の雜話、古來禁之、  
一 賓主歴然の會、巧言令色入へからず、  
一 一會始終、二時に過べからず、但し法話・清談に時うつるは制の外なり、」  
千宗室 編(1977)『壺中炉談』『茶道古典全集』第4卷, 淡交社, pp.415-416.

31) 筒井紘一 編(2015)『茶の湯 入門』, 洋泉社, p.70.

32) 尾崎博正(2002)『茶庭のしくみ』, 淡交社, p.34.

한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상대방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이 와비차의 정신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본다.

와비차의 초암로지는 시중의 산거(市中の山居)로도 불리어진 것처럼 로지는 도시안의 좁은 공간에 깊은 산마을의 풍경을 끌어와 응축하고, 상정(想定)을 통해 심산유곡의 기분을 음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공간이다. 산의 저편에 이상향이 있다고 보는 산중타계관(山中他界觀)은 인류의 보편적인 관념이지만 별세계(別世界)인 산속의 주거(山里)를 도시의 주거(住居)안에 설계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적용하는 발상은 다도에서 시작<sup>33)</sup>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도에서는 로지에 물을 뿌려두는 삼로(三露)를 중요시 한다. 삼로는 손님이 로지에 들어오기 전에 1회, 다회의 중간 휴식시간 전에 1회, 다회가 마무리되고, 손님이 다실에서 나올 무렵에 1회로 모두 3회 로지에 물을 뿌린다. 손님이 다니는 길에 미리 물을 뿌려둠으로써 로지가 청결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뿌리는 물은 다치미즈(立水)라고 하여 손님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도 한다. 주인은 로지의 바닥에 물을 뿌리고, 손님은 조즈바치의 물로 손을 씻는 동작을 통해 속세의 부정을 씻어내고, 깨끗한 심신으로 다회를 진행하자는 상징성과 실용성을 겸하는 일종의 의식<sup>34)</sup>으로 볼 수 있다.

내로지에 설치하는 쓰쿠바이는 조즈바치를 중심으로 특정한 역할을 맡은 쓰임돌(役石)로 구성되어 있다. 쓰임돌 중에서 기본인 전석(前石)은 조즈바치의 전방에 놓는 돌로 조즈바치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는 편평한 돌이다. 테쇼쿠이시(手燭石)는 밤 다회 때 사용하는 등불을 올려놓기 위한 돌이고, 유오케이시(湯桶石)는 겨울철 따뜻한 물을 담아두는 나무통을 올려놓는 돌이다. 로지의 중추적인 구성요소인 쓰쿠바이는 청정무구한 다실로 들어가기 전에 속세의 더러움과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기능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로지의 쓰쿠바이에는 쓰임돌이 전체적으로 원형의 형태가 되도록 배치하고, 토양을 고정시키는 돌과 쓰임돌을 적절히 배치하여 바다를 상징적으로 조성한다. 물의 유량을 조절하는 수문석도 설치한다. 쓰쿠바이의 공간은 청정한 바다를 상징하고, 조즈바치의 청정한 물로 세속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는 신도(神道)의 미소기(禊ぎ)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 熊倉功夫(2016)『茶の湯 -心とかたち』熊倉功夫著作集 第1巻, 思文閣出版, p.104

34) 박전열(2013)『남방록 연구』, 이른아침, pp.70-71

## 5. 맺음말

정원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자연관과 생활방식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공간문화이다. 헤이안시대 일본인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산마을의 공간에 관해 와카를 통해 고찰한 결과 헤이안시대의 가집 『고킨슈』의 용례에서 산마을의 이미지는 빈한하고, 적막한 곳이지만 덧없는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 편안한 장소로 묘사되어 있었다. 마음의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와비차의 로지정원이 추구하는 깊은 산속 산마을의 적막한 정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헤이안시대 일본인의 산마을에 대한 동경은 자연을 대상화하여 조망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는 생활방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쿠테이키』에 기록된 산마을 풍경의 조성방식은 건물 가까이에 산을 축조하고, 산의 경사면과 산기슭에 다양한 정원석을 배치하여 산마을의 적막한 정취를 표현하는 조경방법이다. 헤이안시대 말기에 교토(京都)의 교외에 산장을 짓는 것이 유행하면서 산마을 조성방식이 정원에 응용되었을 것<sup>35)</sup>이라고 보고 있다.

근세가 되면서 산촌의 경관을 조영한 산마을은 오사카 성과 나고야 성, 주라쿠테이 등에 조성되었고, 와비차가 지향하는 다실도 설치되었다. 로지는 다실과 일체화된 다도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정원이다. 로지의 공간구성의 특성은 다양한 장치를 따라 이동하면서 오감을 통해 깊은 산중에 은거하는 기분과 공간과의 일체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로지의 쓰쿠바이 공간은 조즈바치와 주변의 자연석의 구성과 배치를 통해 순수하고, 청정한 원초적인 자연에 대한 일본인의 동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자연석의 이시구미(石組)를 통해 무한(無限)한 대자연의 풍경을 재현하는 일본 정원문화의 조형적 특성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로지정원은 『사쿠테이키』에서 제시한 자연 본래의 풍경을 조성하는 조경방식과 자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는 다인들의 창의성이 치밀하게 구상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인들이 축적해온 미적인 관점에서의 독특한 발상은 로지의 공간문화에도

35) 田村剛(1972) 『作庭記』, 相模書房, p.202.

면면히 계승되어 왔다. 다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동작에도 의미와 사상을 부여하여 미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다각적인 문화 창조역사가 일본의 공간 문화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고유의 전통문화에서 새로운 발상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일본문화의 특성이 산마을이라는 공간 문화를 통해서도 명확히 표출되어 있다. 다도문화에는 일본문화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축적되어 있다. 다도문화와 신도와의 영향관계는 차후 실증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박전열(2013) 『남방록 연구』, 이른아침, pp.70-71.
- 이미자(2018) 「일본 정원문화와 로지(露地)의 미학」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제7회 국제학술대회 프로서딩』,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pp.408-411.
- \_\_\_\_\_ 「『사쿠테이키(作庭記)』와 일본 정원문화의 특질에 관한 고찰」, 日本語文學 第77輯, pp.264-265, pp.276-277.
- 秋山虔 編(2001) 『王朝語辞典』, 東京大学出版会, p.454.
- 飯島照仁(2011) 『茶室と露地』, 淡交社, pp.220-221, pp.246-247.
- 石田 洵(2017) 「日本文化の風土 気分環境としての侘び」, 古典遺産 66号, pp.40-41.
- 尾崎博正(2002) 『茶庭のしくみ』, 淡交社, p.12, pp.33-34.
- 小島憲之·新井栄蔵 校注(1989) 『古今和歌集』, 岩波書店, p.37, p.74, p.76, p.105, p.284.
- 小野健吉(2004) 『岩波 日本庭園辞典』, 岩波書店, pp.320-321.
- 小町谷照 校注(1990) 『拾遺和歌集』, 岩波書店, p.290, p.295.
- 熊倉功夫(1991) 『利休·織部·遠州』, 小学館, p.153.
- \_\_\_\_\_ (2016) 『茶の湯 -心とかたち』 熊倉功夫著作集 第1巻, 思文閣出版, p.104.
- 神津朝夫(2012) 『茶の湯と日本文化』, 淡交社, p.122, p.124.
- 齊藤一雄(1982) 「空間文化論としての日本の庭園」, 造園雑誌 46(2), p.122.
- 千宗室 編(1977) 「禅茶録」 『茶道古典全集』 第4巻, 淡交社, p.304.
- \_\_\_\_\_ (1977) 「壺中炉談」 『茶道古典全集』 第4巻, 淡交社, pp.415-416.
- \_\_\_\_\_ (1977) 「宗湛日記」 『茶道古典全集』 第6巻, 淡交社, pp.207-208.
- 田村剛(1972) 『作庭記』, 相模書房, p.202.
- 辻 惟雄(2012) 『日本美術の歴史』, 東京大学出版会, p.141.
- 筒井紘一 編(2010) 『新版茶道大辞典』, 淡交社, p.1270.
- \_\_\_\_\_ (2015) 『茶の湯 入門』, 洋泉社, p.70.
- 中村昌生 編(2018) 『茶室露地大事典』, 淡交社, p.598, p.881, p.891.
- 中村利則(他) 編(2000) 『茶室·露地』 茶道学大系 第6巻, 淡交社, p.77.
- 中村良夫(2009) 『風景学入門』, 中央公論新社, pp.83-84.
- 成川武夫(1988) 『千利休 茶の美学』, 玉川大学出版部, p.86.
- 西沢美仁·宇津木言行·久保田淳(2003) 『山家集·聞書集·残集』, 明治書院, p.18, p.284, p.295.

西山松之助 校注(1986) 『南方録』, 岩波文庫, pp.9-12, p.225.

林屋辰三郎 校注(1973) 「作庭記」 『古代中世芸術論』 日本思想大系23, 岩波書店, p.226.

森蘊(1966) 『小堀遠州の作事』, 吉川弘文館, p.148.

<http://www.mlit.go.jp/common/001135926.pdf> (검색일 : 2018.12.26.)

<http://www.mlit.go.jp/common/001047114.pdf> (검색일 : 2018.12.26.)

논문 투고 일자 : 2018. 12. 31
-------------------------

논문 심사 일자 : 2019. 01. 31.
--------------------------

계재 확정 일자 : 2019. 02. 01.
--------------------------

---

 <要旨>
 

---

 山里の空間文化に関する研究  
 -露地を中心に-

李美子

『作庭記』における山里とは家の近くに高い山を設けて、その山頂から裾まで石を組み、山里の風情を造り出した造園型式である。この造園手法は平安時代末期、京都の郊外に別荘や山荘を建てるのが流行し貴族たちの庭園作りに取り入れられ、山里の雰囲気を楽しんだと思われる。本稿はこの山里の造園方法や平安時代の和歌に描写された山里のイメージを探り、露地の空間構成の特質や茶道文化との関連を考察した。平安時代の和歌にいう山里のイメージは憂き世から逃れる自然美の地であり、物侘しい所だが心の自由を得られる空間でもある。侘び茶の草庵露地は市中の山居と呼ばれた。露地は都市の中の日常的な空間を深山幽谷の山里に見立てた静寂な空間である。蹲踞にて最初の所作は主人が手水鉢に入れる水を運ぶことであり、客も柄杓で手水鉢の水をすくい上げ手や口を清める。これは俗世の心の塵や執着、穢れを清潔な水で心身ともを清める儀式である。即ち、蹲踞を海に想定して神道の禊ぎを取り入れた機能的装置ともいえる。日本人の山里への憧憬や共通のイメージは平安時代を始め近世と現代に至るまで綿々と受け継がれている。最近日本政府の美しい国土を創造する施策の一環として山村の活性化に取り組むという施策も含まれている。日本古来の山里のイメージや思想を現代の美しい国土の創造や地域の活性化に繋げる仕組は注目すべきである。日本の伝統文化から次々と新しい発想を作り出す日本文化の特質が山里という空間文化にも明確に現れていると思われる。

 A Study on the Spatial Culture of Yamazato(Mountain Villages)  
 - Focusing on Roji -

Lee, Mi-Ja

This study examined how mountain villages were built as proposed in the “Sakuteiki”, a book on garden design in the Heian period,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roji* (gardens for tea ceremonies) designed with the theme of a mountain village. *Roji* are gardens created for *chado* tea ceremonies by bringing the landscape of high mountains and secluded valleys into an ordinary urban setting to create an atmosphere of being in a mountain village.

Japanese peoples' admiration for mountainous landscape and their shared image has continued to be passed down from the Heian period throughout the modern era and into the present. Most Japanese Cities have mountain villages nearby, and thus harbor natural scenery. Revitalizing mountain villages was identified as a recent government initiatives to create a scenic country, and research on mountain villages can be important as efforts are underway to incorporate images and ideas of mountain villages into creating a beautiful country.